

연구자료

일본형 회원제 농촌민박 경영 실태와 농촌진흥

조건: 오이타현 아지무마치 사례로

장덕기*

Keywords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 애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 농촌민박(rural homestay)

Abstract

The promotion of the regional revitalization in Japan through rural homestay is actively implemented as a means of systematic structuring of agribusiness in harmony with agriculture, manufacturing, and tourism. In order to study this topic in depth, an analysis was made by utilizing 16 farms practicing a homestay program in Ajimu-machi(town), Oita Prefecture, a well-known region for advanced agribusiness. The town promoted the relationship of mutual existence that cherishes rural life, giving pride and self-esteem to the rural residents, and leaving impressions on urban visitors. In this sense, the experience of Ajimu Town has shown the potentials of the Japanese-style green tourism, and it focuses on rural life itself rather than preparation for special menu. The administrative officials actively supported the activities of the Research Association of Green Tourism and gave confidence to the hosts of rural homestay programs.

차례

- | | |
|--------------------------|----------------|
| 1. 서론 | 3. 분석결과 및 해석 |
| 2. 농촌시책과 일본형 회원제
농촌민박 | 4. 농촌개발 및 진흥조건 |
| | 5. 결론 및 시사점 |

* 전남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1. 서 론

일본 정부는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에 근거한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 실시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농업인을 활용한 복합 애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 도입 등의 경영구조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농촌지역에서는 기간산업인 농업 진흥을 모체로 한 애그리비즈니스의 중요성이 한층 더 중시되면서 이를 통해 농업·농촌의 진흥을 시행하고 있으며, 애그리비즈니스의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농촌주민, 농협이 중심이 된 농산물의 가공이나 농산물·농산물가공품의 판매, 농촌레스토랑 운영 등 다양한 애그리비즈니스 추진이 각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애그리비즈니스는 농업 생산을 핵으로 가공·유통·정보·교류 등의 분야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직매소, 가공시설, 농촌레스토랑, 농촌민박 시설의 유기적인 연결로 인한 지역활성화로 방문객이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의 생활을 위해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동, 농산물 직매소를 중심으로 한 농촌시장의 출현, 인터넷을 활용한 농촌에서 도시로의 정보발신 등으로 도시와의 교류 및 연계가 새로운 농촌 활성화의 초석이 되고 있다.

농업·농촌에 있어서 산지 직매소나 농촌 레스토랑, 관광농원 등에 의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나 그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산업 등과의 제휴 등, 지산지소 등의 실천을 통해서 지역 농산물에 대한 강한 신뢰 관계가 구축되고 있다.

경제의 글로벌화, 식료소비의 다양화·고도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배경으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애그리비즈니스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¹은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한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체류형 교류활동이며 도시민에게는 휴식과 새로운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농촌에는 농산물판매(1차), 가공산업(2차), 숙박 음식물 서비스(3차) 등 소득원을 제공하는 지역활성화 전략의 하나이자 애그리비즈니스의 대상이다.

¹ 그린투어리즘란 「신록이 풍부한 농촌지역에서, 자연, 문화, 사람들과 교류를 즐기는 체재형의 여가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농림수산성).

지역에 따라서는 농업·애그리비즈니스에 관한 인재육성의 장² 으로써 새로운 6차 산업형 애그리비즈니스의 진흥을 도모하고, 특산품개발이나 확대에 의한 경제적자립 촉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도농교류, 도시문화와 지역문화의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 농산촌의 급격한 인구감소, 농업종사자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 후계자의 부족, 농산촌의 과소화 등 여러 문제가 깔려있다. 또한 농산물의 개방화·국 제화에 의한 농축산물의 가격하락 등 농산촌지역의 각 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한층 더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최근에는 도시민이 농촌을 방문하여, 농촌의 여유와 안락한 공간 속에서 여가를 보내는 그린투어리즘³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린투어리즘의 도입은 도시민에게 농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은 물론 한편으로는 새로운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등 개방화 시대 애그리비즈니스화를 통한 농촌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에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각 지역별 특징을 살린 그린투어리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농가소득 제고는 물론, 도시민에게 농촌을 이해하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자국 농산물의 수요를 증대시키는 효율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른바 도·농의 상생을 통해 개방화에 따른 수입농산물에 대응하면서 애그리비즈니스 활성화로 일본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⁴

그린투어리즘에서 농촌민박은 중요한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데 체험형 투어리즘 즉 농업·농촌체험을 토대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회원제 농촌민박을 실천함으로써 일본형 농촌민박⁵ 활성화에 기여

² 사단법인 일본 애그리비즈니스 센터에서는 농림수산성 정책의 일환으로 지식뿐만 아니라 실천적·즉 전력적인 내용으로 밀도 있고 효과적인 연수를 목표로 하는 경영 애그리비즈니스 스쿨을 개최하고 있는데 경영 애그리비즈니스 실천코스와 지역매니저 양성코스가 있음.

³ 그린투어리즘은 농촌지역의 풍요롭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깨끗한 자연환경 그리고 전통문화가 숨쉬는 시골 정취를 도시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총체적인 활동을 의미하며, 농업관광, 농촌관광, 생태관광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됨. 이중 농업관광은 농업에 연관된 사업이나 행위 등을 위한 투어리즘을 말하며, 농촌관광은 농촌에 있는 인문, 문화자원을 포함한 경제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을 종합하여 투어리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생태관광은 자연생태 전체를 대상으로 투어리즘을 시행하는 것임.

⁴ 농촌민박이나 레스토랑 설치, 농산가공이나 직거래 실천 등으로 애그리비즈니스의 진흥을 촉진하여 애그리비즈니스특구로 지정받아 농촌의 활성화 및 농업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⁵ 일본 농림어업 체험 농촌민박제도란 그린투어리즘을 즐길 수 있는 숙소를 등록하는 제도임.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기 위해 1995년에 제정된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정비 추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농림수산대신(장관)의 지정을 받은 재단법인 「도시·농산어촌 교류 활성화 기구」에서 숙소의 심사와 등록을 실시하고 있음. 농촌에서 숙박하면서 그 지역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숙소로 농림어업 농촌민박임. 일본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

한 오이타현(大分縣) 아지마(安心院)형 농촌민박 경영을 통한 농촌개발 및 진흥 조건을 도출하고, 한국형 농촌민박을 실천하는데 있어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형 농촌민박의 선진지역인 오이타현 아지마마치 상시수용 가능 농가 전체 16호에 대하여 2006.8.17~8.30일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농촌민박의 경영, 체험프로그램, 농업경영, 향후 의향, 그린투어리즘이 지역진흥에 미친 영향, 인구 통계학적문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 농촌시책과 일본형 회원제 농촌민박

2.1. 농촌진흥에 관한 시책⁶

첫째, 지역 자원의 보전 관리 정책의 구축을 위해, 농지·농업용수 등의 자원이나 농촌 환경을 보전 관리하는 지역 공동의 효율적 추진과 화학 비료나 화학합성농약 사용의 대폭 절감 등, 환경 부하를 줄이는 선진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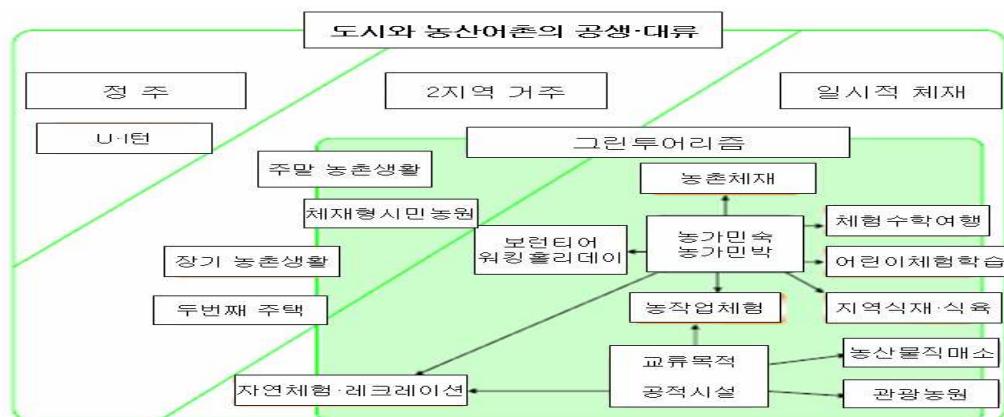


그림 1.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대류

으며, 그 형태로는 민가풍이 많은 것이 특징임. 숙박요금은 1박 2식(식식, 조식)을 기본으로 하는 곳이 많은 만큼, 그 지방이 아니면 맛 볼 수 없는 요리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⁶ 農林統計協會「食料·農業·農村白書」, 2007.

둘째,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농산어촌에 있어서 정주·2지역 거주나 도시와 농산어촌과의 지역간 교류의 촉진으로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계 법령의 정비와 농·림·수의 종적관계 없이 시설의 정비 등 각종 추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부금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셋째,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선진 사례의 보급·장려로 지역 자발적 추진이나, 경제 활성화를 지탱하는 도로, 물류 거점 등의 기반 정비를 추진한다.

넷째, 도시와 농촌의 공생·대류의 촉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일체되어 시책을 추진하고 「오라이! 일본 회의」의 활동에 대한 지원, 우량 사례의 표창 등을 통해서, 다양한 주체와 협조·제휴한 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도시농업의 다양한 역할을 통한 체험농원의 전국적인 보급이나 시민농원의 정비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2.2. 일본형 그린투어리즘의 전개⁷

최근 일본에서는 도시주민이 농산촌의 자연이나 환경, 경관, 생활, 문화, 사람들의 교류를 즐기는 체재형 여가활동, 즉 그린투어리즘이 주목 받고 있다. 농산촌에 있는 지역의 자원을 살린 도시와 농촌의 공생·공존의 새로운 기회 창출로 농산촌지역·주민들에게도 효과가 기대되고 농산촌의 활성화 책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이처럼 그린투어리즘이 일본에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요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구의 감소, 고령화에 따라 그린투어리즘에 의한 숙박, 레스토랑, 직매사업, 관광농원, 시민농원, 체험농림수산업 등을 통해 농산어촌의 경제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었다는 점, 둘째, 그린투어리즘에 의한 도시민과의 교류는 향토음식이나 농림수산가공의 재평가, 식료의 지역자급 재검토 등을 통해 지역유통을 재건하고 여성, 고령자, 젊은 층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점, 셋째, 국민의 레저·여가생활 지향과 자연 속에서 쾌적하게 생활하고 싶은 욕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점 등이다.

특히 2000년 이후 주목할 점은 2002년 3월 오이타현 환경위생부가 간이숙소의 영업허가를 매우 간소화 했다는 점이다. 서일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빈집을 그대로 농촌민박용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가 떨어졌다. 이는 그린투어리즘을 희망하는 농가가 그

⁷ 아지마치 청취조사 및 내부자료. 青木辰司. 2004. 「グリーン・ツーリズム実践の社会學」, 丸善株式會社. 山崎光博. 2004. 「グリーン・ツーリズムの現状と課題」. 筑波書房.

린투어리즘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 유일하게 그린투어리즘 고장임을 선언하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시금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은 행정주도의 농업체험 농촌민박의 정비에서 농가주도의 농가자립형 그린투어리즘으로, 그리고 현재는 농촌의 농촌민박규제완화, 휴가 및 여가를 염두에 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 그린투어리즘 총합추진대책」⁸을 마련하여 관광입국(觀光立國), 관광입촌(觀光立村)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그린투어리즘⁹은 농업 및 농촌체험학습을 확대하고 이를 농촌지역 활성화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다. 또한 그린투어리즘은 어린이들이 농업이나 농촌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먹거리에 대하여 생각하고, 도시와 농촌의 연계 필요성을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 농산어촌에서는 관광입국의 실현과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교류의 일환으로서 그린투어리즘이 추진되고 있다.¹⁰

2.3. 아지마마치(安心院町)의 회원제 농촌민박 경영¹¹

실천개요

아지마마치는 오이타현 북서부의 분지에 위치하는 전형적인 중산간지의 농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2005년 현재, 총경지면적은 1,429ha(논: 1,162ha, 밭: 114ha, 과수원: 154ha)이고, 인구는 2007년 4월 1일 현재, 약 7,448(2,828세대)명으로, 일교차를 살린 포도의 재배나 자라 양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아지마마치도 과소화·고령

⁸ 도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관광입국실현을 취지로, 共生·對流의 국민생활에 있어서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의 새로운 형태 제안·보급을 위한 「願望顯在化戰略」, 「情報化戰略」, 「產業化戰略」 등을 사업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음.

⁹ 도시근교형: 1일 생활권으로 농림어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지역만들기 추진형태 (농업공원, 관광농원, 자연공원 등), 주말체류형: 농업농촌에 친밀감을 갖도록 하는 형태(간이 숙박시설 떨린 시민농원), 교류형: 자매결연을 통해 도시민에게 체험기회제공, 체험자원형: 지역의 특징을 살리고 체험형에 관심 높은 층을 대상으로 함.

¹⁰ 농림통계협회 「食料·農業·農村白書」 2003년도.

¹¹ 아지마마치 청취조사 및 내부자료. 青木辰司. 2004. 「グリーン・ツーリズム實踐の社會學」, 丸善株式會社. 安心院町グリーンツーリズム研究會. 2005. 「心のせんたく」, vol.7-9.

화, 가격 침체에 의한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기간산업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숙박 사업을 추진했지만, 각종 법령 규제에 따라 사례비를 농촌문화 체험료로 해서 수취하는 「아지드방식」이라고 불리는 회원제 농촌민박을 실천하게 되었다. 농촌민박은 농산촌 지역 진홍책으로서 가장 주목받는 사업이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아지드마치를 어떻게든 진홍시키고 싶다고 생각한 지역민들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아지드마치의 그린투어리즘은 농업에 종사하는 8명의 ‘아지드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그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주민들의 찬성으로 1996년 「아지드마치 그린투어리즘 연구회」가 발족되었고 그 중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촌민박은 이 연구회 활동의 일부라 할 수 있으며, 1996년 지역이벤트인 「와인축제」를 통해 「농가에 체류하며, 와인축제에 참가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슬로건으로 시범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를 계기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농촌민박의 이용객은 해마다 증가해 시범적으로 시작한 1996년은 참가자가 100명 정도였던 것이, 2005년도는 4,900명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당일 방문객까지 포함하면 약 11,000명에 이르고 있다 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회원제 아지드방식(安心院方式)

아지드마치에서는 회원제를 도입하여 농촌문화 체험료(1박 4,000~5,000엔)를 숙박료로 받고 그 가운데 일부를 그린투어리즘 연구회가 사례비(실제로는 농촌민박 농가가 받아, 200엔을 운영비 명목으로 연구회에 납입) 명목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농가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숙박 장소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여관업법이나 식품위생법이 적용되어 허가를 받으려면 고액의 자금 투자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당초에 회원제는 여관업법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불명확한 법적근거로 운영되어 왔다. 2002년 3월 오이타현이 ‘농촌민박을 여관업법상에서 간이 숙소로 인가해, 손님 전용의 조리장은 필요 없다’ 등 획기적 규제완화를 실시함으로써 ‘아지드식 농촌민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무엇보다도 농가는 새로운 시설 투자를 하지 않고 ‘농촌민박’을 실시할 수 있고, 사용하기 쉽다는 점이 아지드가 독자적으로 ‘농촌민박’을 실천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아지드식 농촌민박’은 멤버스 카드에 스템프를 찍는 것으로, 회원 자격이 주어지는 시스템이지만, ‘1회 숙박하면 먼 친척, 10회 숙박하면 진짜 친척’이라는 캐치프레이즈

로 방문객을 손님 취급하지 않고, 친척으로 생각하고 교류하고 싶은 도시민의 호응을 얻었다. 농촌민박 35호 중 언제나 여행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놓가는 16호이고, 고령자가 경영주이다. 오랜 지식이나 경험, 기술 등 고령자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보나 지역만들기 활동, 고령자가 지역의 중심에 서서 그린투어리즘의 애그리비즈니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지므로마치는 포도원을 통한 생산·가공·판매·축제·교류 체험 및 관광의 복합사업의 전개에 의한 6차 산업화 추진으로 농촌민박의 기업화 등에 의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6차 산업형 새로운 그린투어리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아지므로마치는 농업·농촌을 지켜나간다는 원칙하에 도시와의 교류에 의한 농촌 전체의 자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민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민·관 협동의 그린투어리즘을 전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연·생활·문화·인적자원을 최대한으로 살려, 회원제 농촌민박, 자원활용, 경관보전 이벤트, 체험학습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지므로마치는 1996년 「아지므로마치 그린투어리즘연구회」¹²를 결성하고, 1997년 전국에서 가장 앞서 「그린투어리즘 실천선언 및 민·관공동의 아지므로마치 그린투어리즘 추진협회」을 설립하였으며, 2001년 전국 최초로 행정기구에 「그린투어리즘 추진계」를 설치하여 민·관 협동추진체제를 정비하였다.

또한 2005년도부터는 사는 힘·사는 즐거움을 배우는 라이프 칼리지(Life College)라는 취지로 「그린투어리즘 실천대학」을 개교하여 그린투어리즘의 인재육성과 지역의 그린투어리즘 보급을 목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식과 농촌민박」 그리고 아지므로마치 그린투어리즘 연구회의 여러가지 전문 활동을 주된 주제로 삼고 있다. 또 지역에 있는 산, 하천, 바다, 부락 등을 대학의 필드로 해, 「식」이나 「그린투어리즘」 분야의 최고 강사와 현지의 실천자를 만나 그들의 체험을 배우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린투어리즘을 실천하거나 보급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인재육성의 장이 되고 있다.

아지므로마치의 농촌민박은 농가에 숙박하면서 식사하는 등 모든 시간을 농가와 함께 보내야 한다. 참가자는 농가의 보통생활을 하면서 향토요리와 농민과의 교류를 만끽하는 농촌민박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다. 농가도 도시민이 오랜만에 시골 친척을 방문하

¹² 1996년 3월 발족되었으며, 회원제 숙박시설로서 연구회가 운영하는 아지므로방식을 실천하고, 1호당 1조 수용을 원칙으로 현재 연구회 멤버는 농가 외에 현이나 정의 직원, 현지여관, 상공업자, 학자 등 300명 이상에 달하고 있음.

는 분위기를 맛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아지마방식」이라 부르며 전국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

현재 상시수용 가능한 농촌민박 농가가 16호로 농촌민박을 핵심으로 농업·농촌 체험메뉴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선진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농촌민박 16호에 대하여 농촌민박의 프로라는 의미의 인증서¹³를 교부하여 회원 농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고 있다.



그림 2. 오이타현 농촌민박 인증마크

2.4. 아지마마치의 농촌민박의 특징 및 효과¹⁴

아지마마치 농촌민박의 특징을 보면 다음 4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아지마 그린투어리즘 연구회」의 역할이 크다는 점, 상시수용 16호, 중고등학생의 수학여행 등 합계 30호 이상 가정이 여행객을 수용할 수 있다. 둘째, 여행객들에게 농촌생활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각 농촌민박별로 그곳에서 만 체험가능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고, 정보교환이 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선진지를 벤치마킹하려는 의지가 강해 매년, 독일 농가 농촌민박 시찰연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¹³ 연구회에서 1년 이상 활동한 경력과, 1일 1조 수용원칙 등 조건으로 연구회의 수용 노하우가 구비되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農伯・推奨の証」 인증서를 교부하고 있음.

¹⁴ 아지마마치 청취조사 및 내부자료. 安心院마치グリーンツーリズム研究會. 2005. 「心のせんたく」. vol.7-9. 安心院마치グリーンツーリズム研究會. 2005. 「心のせんたく」. vol.7-9.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 사람과 문화, 사람과 기술의 관계를 체감하고 그곳에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공생 방법을 배우고 있다. 아지마치 민박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방문객, 현지 주민 모두 그린투어리즘을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지마치는 자연·식·농을 테마로 한 체험학습을 어린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산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식과 농의 거리를 축소, 체감해가는 산 교육의 장으로서 생활밀착형 그린투어리즘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은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중심적인 역할은 다름 아닌 여성과 고령자가 맡고 있다. 자기희생을 수반하는 봉사형 교류가 아닌 다양한 교류의 전개가 가능하도록 각종 지역산업을 결합한 지역연계형의 농촌민박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경제적인 효과 측면을 보면, 1992년에 도시민과의 교류활동이 처음으로 개시된 이래, 1997년부터 「회원제 농촌민박」¹⁵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5년 현재 회원수는 400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아지마치의 성과는 농업생산체험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류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이해를 깊게 하고, 지역농산물 직매소의 판매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들었다.¹⁶

아지마치가 이처럼 단기간에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을 살펴보면, 연구회 활동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농가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줌과 동시에 지역内外에서도 이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촌의 좋은 점을 전면에 나타내어 마음을 통한 교류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도록 한 점이 커다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정(町)이 지속적으로 지원한 농업체험과 농촌민박경영 회원제 농촌민박시스템은 일본의 농촌민박 형태를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오늘날 오이타방식으로까지 명명될 정도로 농촌민박이 확산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파급효과되어 농가에 자신감을 심어주고 지역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한다.

¹⁵ 숙박객을 회원으로 한정하여 「농업·농촌문화체험료」로서 1박에 4,000엔을 받고 있음. 보통 생활, 손님을 친척처럼 모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숙박 1회시 「먼 친척」, 숙박 10회시 「진짜 친척」라는 슬로건으로 이용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음.

¹⁶ 2002년 교류 방문객 2,500인, 농산물직매소 판매액 2억 5,000만 엔에서 2007년부터는 목표는 5,000인, 5억 엔

3. 분석결과 및 해석

3.1. 조사농가의 특성

경영주 연령을 보면, 16농가 중 12농가가 60세 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연령이 63.7세로 고령 농가 중심으로 실천하고 있다. 농촌민박 경영주 성별을 보면, 전농가가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남자의 경우는 주업인 농업을 담당하면서 농촌민박의 지원자의 역할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농경력은 평균 27.8년이고, 농촌민박 경력을 보면 평균 8년으로 10년 이상된 농가도 7군데에 이르며 가장 최근 실천농가는 2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 가족수는 평균 2.8인으로 부부+자녀 1인의 가족구성이 10농가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농촌민박 방수를 보면 호당 2.6실, 평균 수용인수는 8.8인으로 나타났다. 평균 체재일은 1박 2일 형태가 가장

표 1. 조사농가의 개요

농가	경영주 연령 (세)	농촌민 박경영 주성별	영농 경력 (년)	농촌 민박 경력	경지면적(a)		동거 가족수 (인)	농촌민 박방수 (실)	총수용 인수 (인)	평균 체재일 (박/일)	인증서 유무
					논	밭					
A	67	여	50	10	100	30	2	4	10	1/2	유
B	67	여	10	9	-	10	4	2	9	1/2	유
C	53	여	30	11	-	과수 10ha	3	1	10	1/2	유
D	67	여	7	8	120	30	5	2	6	1/2	유
E	63	여	10	10	350	70	3	3	8	1/2	유
F	70	여	50	2	100	30	2	1	4	1/2	유
G	71	여	18	11	10	10	2	2	6	1/2	유
H	69	여	40	6	50	30	2	2	8	1/2	유
I	55	여	36	3	-	-	3	2	7	1/2	유
J	69	여	45	10	30	10	1	5	20	1/2	유
K	64	여	9	11	-	-	3	3	11	1/2	유
L	67	여	8	8	120	20	4	2	6	1/2	유
M	47	여	25	8	100	80	5	2	8	1/2	유
N	64	여	27	5	-	-	1	4	10	1/2	유
O	56	여	30	12	100	30	2	3	8	1/2	유
P	70	여	50	6	80	20	3	4	10	1/2	유
평균	63.7	-	27.8	8.1	-	-	2.8	2.6	8.8	1/2	유: 16

자료: 농촌민박농가 조사에 의해 작성.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증서 유무를 보면, 상시 수용농가 모두 인증서를 받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민박의 프로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방문객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3.2. 농촌민박경영

봄에 방문객들이 가장 많다는 응답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4계절 비슷하게 방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분산이나 꾸준한 실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농촌민박 건물 상황을 보면, 별채나 방의 일부를 개조한 농가도 있지만 특별히 개조하지 않은 경우가 11농가로 대다수 참여농가가 본래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방문객 여부를 보면, 11농가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방문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농촌다움을 느끼기 위해 재방문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농촌체험 목적 순으로 나타났다.

3.3. 체험프로그램

현장 체험프로그램은 주로 모내기, 벼베기, 중심으로 농가별로 2~7종류가 있다. 참가자들을 살펴보면 가족동반 방문객(12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아동 수학여행 순으로 나타났다.

체험 장소는 전농가가 본인의 토지나 시설에서 하고 있으나 타 농가의 시설 등을 연계 활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준비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체험프로그램을 견학하면 도움이 된다는 농가는 11농가로 상당히 긍정적인 반면, 도움이 안 된다는 견해는 2농가에 불과했다. 체험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는 6농가가 노동력 부족·고령화, 안전성 확보와 보험을 들었고, 5농가가 인재부족, 고령화에 따른 젊은 노동력 부족, 후계자 부재, 방문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을 꼽았다.

표 2. 농촌민박경영

농가	주방문 계절	농촌민박 건물상황	재방문자	방문자 주목적	방문자의 방문 요인
A	4계절 비슷함	별채개조	상당히 많음	농촌분위기	농산촌경관, 요리, 교류
B	여름	개조 없음	대체로 많음	농촌분위기	농산촌경관, 마음가득한 서비스, 교류
C	4계절 비슷함	신축	대체로 많음	온천	농산촌경관, 마음가득한 서비스, 교류
D	봄	방개조	거의 없음	요리	농산촌경관, 저요금, 마음가득한 서비스
E	여름	개조 없음 방 중설	보통	농촌분위기	농산촌경관, 농업체험, 교류
F	4계절 비슷함	개조 없음	거의 없음	농촌분위기	농산촌경관, 마음담긴 서비스, 교류
G	봄	개조 없음	거의 없음	농촌분위기	자연환경, 그린투어리즘유행교류
H	4계절 비슷함	개조 없음	대체로 적음	농업체험	자연환경, 농산촌경관, 숙박시설쾌적
I	봄, 여름, 가을	개조 없음	대체로 적음	농업체험, 농촌분위기, 온천	자연환경, 마음담긴 서비스, 농업체험
J	4계절 비슷함	개조 없음	보통	농촌분위기 요리	자연환경, 저요금, 요리내용
K	봄	개조 없음	대체로 적음	농촌분위기	저요금, 농업체험
L	봄	개조 없음	거의 없음	농업체험	자연환경, 농업체험, 마케팅이나 선전
M	여름	개조 없음	대체로 적음	농촌분위기	쾌적한 숙박시설, 마음담긴 서비스, 조용한 분위기
N	봄	개조 없음	거의 없음	농업체험	자연환경, 그린투어리즘유행, 한적한 분위기
O	여름	별체개조	대체로 적음	농업체험	자연환경, 농산촌경관, 요리, 농업체험, 교류, 도시접근
P	봄	개조 없음	대체로 적음	농촌분위기	자연환경, 농산촌경관, 요리, 농업체험, 교류, 온천
종합	봄: 6 4계절비슷: 5 여름: 5	개조없음: 12 개조: 3 신축: 1	적음: 6 거의없음: 5 많음: 3	농촌분위기: 10 농촌체험: 5	농산촌경관: 9 자연환경/교류: 8 마음가득한 서비스: 5

자료: 농촌민박농가 조사에 의해 작성.

표 3. 체험프로그램

농가	현재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상황	체험 장소	체험프로그램효과	체험프로그램 문제점
A	작물수확 밭작업	가족동반 젊은 부부 학생·아동	본인 토지시설	대단히 도움이 됨	노동력 부족·고령화, 안전성 확보와 보험
B	과수·꽃·하브	가족동반 장년부부	상동	그런데로 도움	기량 부족, 노동력 부족·고령화, 안전성 확보와 보험
C	과수·꽃·하브	청년층 학생·아동	상동	대단히 도움이 됨	안전성 확보와 보험 참가자의 불일정
D	작물수확 밭작업	가족동반 여행객	상동	판단하기 어려움	참가자 감소, 참가자가 일정치 않음
E	밭작업 목장체험	가족동반, 장년부부, 학생·아동	상동	그런데로 도움	안전성 확보와 보험 참가자니즈 다양화 참가자의 불일정
F	작물수확 밭작업	여행객, 학생·아동	상동	그런데로 도움	인재 부족 노동력 부족·고령화
G	작물수확 밭작업	가족동반, 장년부부, 학생·아동	상동	그런데로 도움	인재 부족 노동력 부족·고령화
H	모내기/벼베기, 밭작업	-	상동	대단히 도움이 됨	노동력 부족·고령화
I	모내기/벼베기, 작물수확 밭작업	가족동반 젊은 부부 학생·아동	상동	대단히 도움이 됨	참가자의 이해 부족
J	작물수확 밭작업	가족동반 학생·아동	상동	판단하기 어려움	인재 부족, 안전성 확보와 보험
K	모내기/벼베기, 작물수확, 밭작업, 목장체험	가족동반	상동	그다지 도움 안됨	참가자의 불일정
L	모내기/벼베기, 작물수확, 밭작업,	가족동반	상동	대단히 도움	-
M	모내기/벼베기, 작물수확, 밭작업, 과수·꽃·허브	가족동반 장년그룹 학생·아동	상동	판단하기 어려움	-
N	작물수확 밭작업	학생·아동	상동	대단히 도움	인재 부족
O	모내기/벼베기, 작물수확, 밭작업, 과수·꽃·허브	가족동반 청년층 학생·아동	상동	그다지 도움 안됨	노동력 부족·고령화
P	모내기/벼베기, 작물수확, 밭작업, 과수·꽃·허브	가족동반 학생·아동	상동	그런데로 도움	참가자의 이해 부족, 인재 부족, 안전성 확보와 보험
종합	밭작업: 14 작물수확: 12 모내기/벼베기: 7 과수·꽃·허브: 5	가족동반: 12 학생·아동: 11	본인 토지시설	도움: 11 보통: 3	노동력·고령화: 6 안전성과 보험: 6

자료: 농촌민박농가 조사에 의해 작성.

3.4. 농촌민박 가정의 전망

농가경영에 대해서 11농가가 현상유지, 확대는 1농가에 그쳐 현상유지의 농업경영에 만족하고 농촌민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민박경영은 현상유지가 13호 확대농가 3호, 축소는 1호로 나타났다.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상유지 13농가로 현수준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농촌민박경영의 전망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농가가 10호로, 대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린투어리즘의 지역진흥여부에 전 농가가 「예」라고 응답했으며, 그린투어리즘이 지역진흥에 미친 영향¹⁷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났다.

농촌민박 경영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는 14농가가 휴가 장기화·분산화, 11농가가 지역 환경보전을 꼽았다. 이밖에 도시민에 정보제공 등 홍보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휴가의 장기화·분산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3.5. 농촌민박이 지역진흥에 미친 영향

농촌민박이 지역진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크다85(48.8%), 보통 60(34.5%), 작다 29(16.7%) 순으로 크다는 견해가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그 중 무엇보다도 지역 이미지 향상, 체험시설·체험학습, 도농교류 확대, 행정과 주민 및 민간의 협력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도시로부터 정주자 증가, 농업후계자를 비롯한 핵심농업인 경영자 육성, 유휴농지활용은 그 영향이 작다는 견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 농촌이 갖는 매력적이고 풍부한 자연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촌에서는 자연, 식재, 경관,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에 의한 지역활성화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¹⁷ 16농가에 대한 조사 결과, 지역진흥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1=매우 작다, 7=매우 크다고 응답, 평균 5.9점(100점 만점= 81.7점)으로 긍정적인 견해가 강함을 알 수 있음

표 4. 농촌민박 가정의 전망

농가	농업경영	농촌민박 경영	체험 프로그램	농촌민박 경영 전망	농촌민박 경영 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지역진흥 여부
A	축소	현상유지	현상유지	대체로 양호	휴가장기화·분산화, 지역환경보전	○
B	현상유지	현상유지	현상유지	그저 그렇다	휴가장기화·분산화, 교통개선·기반정비, 지역환경보전	○
C	확대	확대	확대	대체로 양호	휴가장기화·분산화, 도시민에 정보제공, 지역환경보전	○
D	현상유지	현상유지	현상유지	별로 좋지 않음	휴가장기화·분산화, 도시민에 정보제공, 지역환경보전	○
E	현상유지	적극적 확대	현상유지	그저 그렇다	휴가장기화·분산화, 교통개선·기반정비, 지역환경보전	○
F	축소	현상유지	현상유지	그저 그렇다	휴가장기화·분산화, 도시민에 정보제공	○
G	현상유지	현상유지	축소	그저 그렇다	휴가장기화·분산화, 도시민에 정보제공, 지역환경보전	○
H	현상유지	현상유지	현상유지	그저 그렇다	휴가장기화·분산화, 교통개선·기반 정비, 지역환경보전	○
I	축소	확대	현상유지	-	식품위생법 재검토	○
J	현상유지	현상유지	현상유지	대체로 양호	휴가장기화·분산화, 도시민에 정보제공	○
K	현상유지	현상유지	현상유지	그저 그렇다	휴가장기화·분산화, 도시민에 정보제공, 지역환경보전	○
L	확대	현상유지	확대	그저 그렇다	휴가장기화, 분산화, 보조자금융자 확충, 지역환경보전	○
M	현상유지	현상유지	현상유지	그저 그렇다	도시민에 정보제공, 보조자금융자 확충, 감세조치책정	○
N	현상유지	현상유지	현상유지	그저 그렇다	휴가장기화·분산화, 교통개선·기반정비, 공공의 체험시설건설	○
O	현상유지	현상유지	현상유지	대체로 양호	휴가장기화·분산화, 도시민에 정보제공, 지역환경보전	○
P	현상유지	현상유지	현상유지	그저 그렇다	휴가장기화·분산화, 지역환경보전 식품위생법 재검토, 전국조직확충	○
종합	현상: 11 확대: 2 축소: 3	현상: 13 확대: 3 축소: 0	현상: 13 확대: 2 축소: 1	양호: 4 보통: 10 별로: 1	휴가장기화·분산화: 14 지역환경보전: 11 도시민에 정보제공: 8	전농가 ○

자료: 농촌민박농가 조사에 의해 작성.

표 5. 농촌민박이 지역진흥에 미친 영향

	작다	보통	크다	계
체험시설/체험학습	-	4	12	16
신규 취농자 증가	2	9	4	15
농촌과 도시교류확대	-	5	10	15
도시로부터 정주자 증가	5	5	4	14
지역주민소득증가	4	5	5	14
경관보전	1	9	4	14
농업경영자 육성	7	4	3	14
행정과 지역주민의 협력관계	1	3	10	14
행정과 민간의 협력	1	4	10	15
유휴농지의 활용	6	6	2	14
지역 이미지 향상	-	1	13	14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	2	5	8	15
계	29(16.7)	60(34.5)	85(48.8)	174(100.0)

자료: 농촌민박농가 조사에 의해 작성.

3.6. 농촌민박 개선과제

표 6. 농촌민박 개선과제

농가	숙박시설	식사	서비스	체험시설	교통편리성	체험프로그램	평균
A	3	5	5	3	3	3	3.7
B	3	3	5	3	3	5	3.7
C	3	3	5	3	4	5	3.8
D	3	3	5	3	4	4	3.7
E	4	3	5	4	3	3	3.7
F	3	4	4	3	4	4	3.7
G	3	3	3	4	3	4	3.3
H	3	3	3	3	3	3	3.0
I	4	5	3	4	5	4	4.2
J	4	4	4	4	4	4	4.0
K	3	4	4	3	3	3	3.3
L	5	4	4	5	3	4	4.2
M	3	3	3	2	3	3	2.8
N	3	4	4	4	5	4	4.0
O	3	3	3	3	4	4	3.3
P	5	4	4	4	5	4	4.3
평균	3.4	3.6	4.0	3.4	3.7	3.8	3.7

주: 농촌민박 개선 과제는 5점 척도로 1=전혀 중요하지 않다, 5=매우 중요하다

자료: 농촌민박농가 조사에 의해 작성.

농가별 6개 문항(숙박시설, 식사, 서비스, 체험시설, 교통편리성,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 평균을 보면 3.7점(2.8~4.3점, 100점 환산=67.5점)으로 나타났으며, 과제별로는 서비스(4.0), 체험프로그램(3.8), 교통편리성(3.7), 식사(3.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의 경우 고령화 등으로 도시보다 뒤떨어지는 점이 농촌민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시와 차별화된 서비스 즉 농촌의 인심을 듬뿍 전달하는 정감어린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4. 농촌개발 및 진흥 조건

4.1. 그린투어리즘 추진을 위한 주민·민간조직·행정의 협동체제 연계를 위한 연구회 및 전담부서 설치

아지드마치가 일본형 농촌민박의 성공모델로 정착된 데에는 무엇보다 강력하게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관민연계의 연구회와 전담부서가 어느 지역보다 앞서 설치되어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했다는 점이다. 그 바탕에는 관민일체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일관된 추진력이 깔려있다.

즉 「아지드마치 그린투어리즘연구회」¹⁸가 결성되고, 전국 최초로 「그린투어리즘 추진 계」를 행정기구에 설치하여, 관민협동(協働)에 의한 강력한 파트너십의 추진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연구회 활동을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실천농가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신감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주된 일촌일품 농박맵 작성, 강연회 및 심포지움 개최 및 후원, 국내외 현지시찰, 각종 이벤트 주체 및 후원, 농촌체험, 농촌민박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역할 분담을 통한 전문적인 활동을 강화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린투어리즘의 추진, 개발, 보급의 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이 농촌진흥의 이유라 할 수 있다.

즉 아지드의 성공은 지역주민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강했고, 더불어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지드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 민가, 농업, 식 그리고 인적자원을 최대한 살려 지역 만들기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

¹⁸ 활동 조직은 廣報部, 企劃開發部, AGRI部, 環境美化部, 農泊部, 應援團部의 6개부로 운영됨.

역주민이 서로 뜻을 같이 하여 노력했다는 점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점으로 평가된다.

4.2. 회원제 농촌민박시스템 · 인증제 도입으로 회원 및 지원자 확보

아지마치에서는 회원카드를 발행하여 회원제로 농촌문화 체험료를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가의 입장에서는 무리한 투자 없이, 농촌민박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농촌민박을 실천하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회원제라는 측면에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완화가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추진에 큰 영향을 주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초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지마치의 농업체험과 회원제 농촌민박시스템은 일본의 농촌민박 패턴을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회원제로 농촌민박을 실시함으로써 도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비농가, 민간기업 그리고 다양한 회원을 확보하였다. 지역주민 주도, 지자체 의회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농촌민박을 특화시켰다. 지역의 자연, 농업, 먹거리, 인적자원을 최대한 살리고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농가의 힘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아지마치 모델 정립으로 회원 및 지원자를 확보해 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3. 그린투어리즘 실천대학을 통한 농촌비즈니스 인재육성의 메카 구축

아지마치는 「그린투어리즘 실천대학」을 개설하여 농업과 자연을 소재의 투어리즘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위한 인재육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그 파급효과가 크다. 따라서 그린투어리즘 정립과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육성에 적극성을 보임으로써 전국적으로 그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다. 도농간 교류의 핵심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강좌, 체험지도자 육성 등을 위한 전문 강좌 개설 등으로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훈련지도자 육성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상시수용 가능한 16호 농촌민박 농가를 현장실습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차별화 교육을 실천하고 장단기프로그램을 통한 인재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농가들이 체험시설/체험학습이 농촌민박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린투어리즘대학의 장단기 프로그램 현장 실습장으로서 참여농가들의 체험시설/체

험학습이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농업경영자육성, 노동교류확대 등 을 포함한 비즈니스의 인재육성에 중요한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 그린투어리즘+친환경농업+애그리비즈니스 융합의 클러스터 · 특구 조성

아지마마치는 그린투어리즘 추진을 선언하고, 농촌과 도시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임 하며, 「안심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발전에 힘썼다. 그로 인해 도시로부터의 정주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 농지 취득 면적 요건의 완화와 효율적인 활용을 전제로 한 법인의 농업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농지법의 특례 조치를 강구하여 유류 농지의 활용과 지역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¹⁹

아지마마치는 그린투어리즘의 수요 증가에 따라 자연을 최대한 살린 농업 · 농촌의 체험기회 제공, 농촌민박, 농산물가공 · 유통 등을 추진하여 그린투어리즘, 친환경농업, 애그리비즈니스가 융합된 새로운 체험 · 교류형 투어리즘을 추진하였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활력 있는 지역산업 즉 지역자원을 살린 다양한 관광자원, 기존의 시설들과의 연계를 도모하면서 지역의 그린투어리즘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애그리비즈니스에 의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농촌민박 경영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는 휴가 장기화 · 분산화, 지역환경보전, 그리고 도시민에 정보제공 등 홍보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휴가의 장기화 · 분산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농촌민박도 광역적인 연계를 통해 단기성보다는 장기성 체류형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또 직매소, 농산물 가공, 농촌 레스토랑 등을 조화시킨 지산지소로 소비자의 안전 · 안심, 건강을 도모하고 농촌과 도시교류를 통해 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교류확대에 의한 그린투어리즘+친환경(안심 · 안전)농업+애그리비즈니스가 조화를 이룬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¹⁹ 「安心の里」 농업특구로 2003. 11월 지정됨.

4.5. 초·중·고교생 수학여행유치를 통한 평생고객 확보 및 가까운 친척 만들기

포도, 쌀 등 지역농산물을 통해 농산물가공, 농작업 체험을 중심으로 한 교류, 특히 전국적인 초, 중, 고교생들의 수학여행의 적극적인 유치로 평생회원 확보라는 관점에서 미래의 고객확보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⁰ 수학여행협회와의 연계 구축으로 수학여행 학생의 전국인 확대가 향후 농촌민박 경영과 애그리비즈니스 활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특색을 살린 「마이 마이(米)모노가타리」²¹, 「전국 와라(藁) 고즈미대회」²² 자라 방류 등 농촌체험은 수학여행 참가 학생을 포함한 모든 방문객의 지속적인 교류의 원천이 되고 있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체험프로그램 참여자가 가족동반, 학생·아동중심이라는 점에서 이를 타겟으로 하는 체험프로그램이 중요하다.

5. 결론 및 시사점

일본은 농촌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로서 농업, 제조업, 관광업 등을 조화시킨 애그리비즈니스 방안의 하나로 농촌민박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일본형 그린투어리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선진지역으로 알려진 오이타현 아지미 농촌민박을 사례로 한국 농촌민박 추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농촌민박 경영주를 보면, 고령화, 부녀화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한국 농촌현실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점을 극대화 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

²⁰ NPO법인 현(縣)그린투어리즘연구회는 농작업체험이나 농가에서의 숙박을 희망하는 수학여행객의 접수창구로 2008년도부터 (재)일본수학여행협회에 위탁협정을 체결함. 농촌체험을 위해 방문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어 현 전체가 수용준비를 갖추어 2008년도 5,000인, 2013년 후에는 10,000인 수학여행객을 맞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학생 1인당 숙박대금은 8,7000엔(1박2일, 각종 경비포함)임.

²¹ 모내기부터 제초, 수확, 그리고 떡 만들기 까지 쌀이 농장에서 식탁에 오르기까지 모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기획으로 지역주민들과 일체가 되어 즐거움과 맛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함.

²² 벗짚을 이용한 다양한 만들기 대회로 2006년 현재, 제8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참가비(접심식사 포함)는 어른 2,000엔, 학생·어린이 1,000엔임.

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젊은 농가들의 참여가 현저하게 적다는 점은 오히려 농촌민박 활성화와 고객다양화에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참여농가의 후계자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내 그린투어리즘대학을 통해 인재육성, 신규참여농가 육성 등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둘째, 농촌민박경영에 있어서 숙박건물을 개조없이 활용하는 농가가 대다수로 큰 경제적인 부담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농가들이 참여한다는 의미이며, 부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재방문자가 많지는 않지만 꾸준하다는 점은 방문객들이 농촌분위기나 농촌체험을 중시한다는 뜻이다. 농촌경관, 지역에 산재한 문화재를 최대한 살린 농촌다움을 지닌 체험프로그램의 특성화 및 다양화가 모든 연령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체험프로그램의 개발이 방문객을 늘리는데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방문자의 방문요인을 보면 농산촌경관, 자연환경/교류, 마음 가득한 서비스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방문자와의 적극적인 교류가 밑바탕이 된 유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체험프로그램은 참여농가 토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체험포장을 특별히 준비하지 않고 가능한 한 논밭 그대로 체험프로그램에 활용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체험프로그램에 있어서 노동력 부족, 고령화, 안전성관련 보험, 인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촌민박의 특징은 특별한 체험 메뉴를 준비하지 않는 농촌의 생활 그 자체의 체험을 중시했다는 점이다.

넷째, 농촌민박 경영시 중요한 정책으로 휴가의 단기화에 따른 단기성 체류를 휴가의 장기화를 통해 장기 체류형 민박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4계절 분산화로 농촌민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지역 환경보전이나 도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연중 방문객이 분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아울러 농촌민박이 지역진흥에 미친 영향으로는 지역 이미지 향상, 체험시설/체험학습, 도농교류확대, 행정과 지역주민과의 협력관계 향상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 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개선 과제로는 도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한 숙박시설, 식사, 서비스, 체험 시설, 교통편리성, 체험프로그램의 꾸준한 개선이 요구된다. 농어촌 자원 활용의 극대화, 농촌으로부터 도시에의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정보제공과 네트워크화, 다양한 소재 발굴 및 그것을 이끌어 갈 인재육성, 지역의 자연적인 특성 등을 포함한 개성있는 공간 정비 등을 도모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끝으로 농촌민박을 통한 ①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민간조직·행정이 서로 협동할 수 있도록 연구회 및 전담부서 설치, ② 회원제 농촌민박시스템·인증제 도입으로 회원 및 지원자 확보, ③ 그린투어리즘 실천대학을 통한 농촌비즈니스 인재 육성의 메카 구축, ④ 그린투어리즘+친환경(안심·안전)농업+애그리비즈니스가 융합된 클러스터·특구 조성, ⑤ 초·중·고교생 수학여행유치를 통한 평생고객 확보 및 가까운 친인척 만들기 등이 포함된 농촌개발 및 진흥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 多方一成. 2006. 「スローライフ, スローフードとグリーン・ツーリズム」. 東海大學出版會.
- 多方一成 外. 2000. 「グリーン・ツーリズムの潮流」. 東海大學出版會.
- 安心院町グリーンツーリズム研究會. 2005. 「心のせんたく」. vol.7-9.
- 青木辰司. 2004. 「グリーン・ツーリズム実践の社會學」, 丸善株式會社.
- 井上和衛. 2004. 「都市農村交流ビジネス」, 筑波書房.
- 山崎光博. 2004. 「グリーン・ツーリズムの現状と課題」. 筑波書房.
- 農山漁村文化協會. 2004. 21世紀の日本を考える. 「自然と人間を結ぶ」. 第24号. 農文協.
- 九州農政局. 2004. 「2003年度九州食料・農業・農村情勢報告」.
- 農林水產統計部. 2004 「農林水產統計」.
- 都市農山漁村交流活性化機構. 2003. 「グリーン・ツーリズム運営のてびき」. 農文協.
- 農林統計協會. 「食料・農業・農村白書」. 各年度.
- 都市と農山漁村の共生・對流. <<http://www.maff.go.jp/nouson/chiiki/gt/index.html>>.
- 社團法人 日本アグリビジネスセンター. <<http://www.abc-japan.or.jp/school/index.html>>.
- 安心院町グリーンツーリズム研究會. <<http://www3.coara.or.jp/~ajimu/howtogo.html>>.
- 大分・安心院グリーンツーリズム實踐大學.
<<http://www3.coara.or.jp/~ajimu/gtjissenndaigakuiriguti.html>>.

원고 접수일: 2007년 5월 18일
원고 심사일: 2007년 6월 2일
심사 완료일: 2007년 9월 17일